인 사 말

윤 홍 근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부회장,
제너시스그룹 BBQ 회장

안녕하십니까?

무술년의 첫 아침을 맞은 것이 바로 어제 같은데 어느덧 태양이 작열하는 여름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초의 각오와 결심이 소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여름이 다가올수록 소비자들은 식품의 위생과 안전에 더욱 관심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외식업계는 식품의 신선도 관리, 온도 및 유통기한 점검, 청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증가할수록 식품위생안전성학회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막중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첨병으로서 학회와 그 구성원들을 향한 우리 사회의 기대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 식품외식산업의 최대 화두는 '가치' 입니다. 단순히 가격과 성능을 따지는 가성비의 시대가 가고 소비자의 심리적 만족도를 중시하는 가심비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식품산업에서는 위생과 안전이 소비자 만족을 좌우하는 중요한 '가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식품 외식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나갈 신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회에서는 빅데이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과 기술 고도화를 통한 신분야 개척에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소비자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정부 유관부처와의 협력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학회는 출범 이래로 주기적으로 심포지엄, 학술발표대회 등을 열어 관련분야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고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왔습니다. 건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정부와 국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회가 국민의 성원과 관심 속에 식품 외식산업 발전과 식품위생 안전성 강화에 이바지하기를 희망합니다. 식품 외식산업에 몸담고 있는 일원으로서 학회의 발전과 성장에 힘을 보탤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